



5면

“전교조 범외노조 취소관결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할”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음 4월 20일) 제2532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이태원 방문자’ 감염검사 행정명령

## 전북도민체전 취소 가닥

### 도, 지역전과 차단 총력… 무료검사 기간 확대 등 위반 땀 구상권 청구… 현재까지 39명 모두 음성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태원지역 방문자 대상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인원에게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5월 11일 13시에 발령하고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8일~9일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자진신고 및 무료검사를 실시함을 알렸지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빠른 시일 안에 검사를 받아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 기간을 확대해 진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도는 5월 8일과 5월 9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5월 2일 이태원업소(클럽 0:00~3:30, 트렁크 1:00~1:40, 쿨 3:30~4:00)방문자는 시군 보건소로 전화·방문을 요청했고 익명으로

검사가 진행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로 도내에서 14명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

됐다. 또한 이태원 클럽 이외 술집,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18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

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 도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 실시 행정명령은 대상자 특성이 어려워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기념식이 열린 11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박양우(오른쪽, 두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하진(왼쪽)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목업을 하고 있다.

## ‘녹두의 함성’ 송고한 정신 계승하다

###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황토현서 성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송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를 주제로 11일 정읍 황토현 전적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한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

지사, 문체부 장관, 동학농민혁명 유족, 전도교와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1894년,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리는 황토현 전

적은 126년 전 동학농민군이 첫 번째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송하진 지사 등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앞서 동학농민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구민사에서 헌화하고 참배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겼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는 주제 영상을 상영한 후에 국무총리의 영상 메시지와 박양우 장관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확인받은 사연 소개 영상이 상영됐으며, 최문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2009. 11. 등록)의 후손(6대손) 최수지 씨는 무대에서

직접 편지를 낭독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고 정신문화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정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화, 세계화되고 국가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5개 유관기관 협의회 통해 결정

전북도, 전북체육회, 남원시에서는 5개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제57회 전라북도민체전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북체육회는 13일 생활체육위원회를 열고 남원에서 6월 19일부터 3일간 개최기로 했던 제57회 도민체전과 관련해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예정이다.

11일 전북도, 도교육청, 전북체육회, 남원시, 남원시체육회 등 도민체전 관련 5개 유관기관은 지난 8일 2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코로나19 사태로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57회 전라북도민체전을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1차회의 때 6월 19일부터 3일동안 남원에서 개최하기로 잡았던 결론을 내린 뒤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개최여부와 관련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5개 유관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개최식 취소와 무관중 경기원칙 등 정상개최안, 일부종목 제외 등 축소안, 취소안 등 3개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점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하반기 개최안은 생활체육대추전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대규모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집중돼 일정 잡기가 사실상 어려워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확산세가 돌출하면서 도민건강 등 도민체전 개최에 우려가 됐다.

아울러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인 도민체전이 안전한 분위기속에서 온전한 체전이 필요하다는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 개최를 갈망하는 200만 도민들의 열원이 참가신청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대회 참가인원이 증가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취소를 결정하는데 대해 도민들께 너무나 송구하다”면서 “급변한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 주길 당부하는 한편 도민들을 위한 더 멋진 체전이 될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체전 주최기관인 전북체육회는 당초 5월 중순경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자인 남원시와 시설보수, 경기장 점검 등 사전 준비를 해 왔으나 코로나 19 감염사태로 전북도와 협의는 물론 14개시군회장단 간담회, 유관기관간담회, 생활체육위원회개회 등을 통해 6월로 연기 하는 등 심도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개최일정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도민체전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기간의 긴급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지원 성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이날 거론됐다.

한편 전북도민체전은 지난 1964년 1회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 서해웨리호 사고와 지난 2018년 전국체전 개최로 취소된 바 있고, 올해 제57회 전라북도민체전이 취소될 경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로 취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 이태원클럽 사태에 유초중고 일주일씩 등교 연기

교육부가 13일 고3부터 예정된 순차 등교를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지금까지 88명이 확진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발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방안엔 따르면 고3은 이를 뒤인 13일 우선 등교할 예정이었다. 학년에 따라 고2·

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 고1·중2·초3~4학년은 27일 학교에 가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5~6학년은 6월 1일 등교하는 일정표가 나와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고3은 일주일 뒤인 20일 등교하게 됐다.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학교에 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